

CEO
Report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2011. 7

동향분석실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목 차

요 약	1
I. 전망 배경	10
II. 실물경제·금융환경	13
1. 세계경제	13
2. 국내실물경제	20
3. 국내금융시장	24
III. 국내보험시장	27
1. 주요지표	27
2. 생명보험	28
3. 손해보험	36
IV. 보험회사 경영과제	47
1. 물가상승과 실손보험의 손해율관리	47
2. 새 회계기준(IFRS)적용에 따른 자본변동성관리	48
3. 시스템차원의 거시건전성 금융감독체계	50

요약

1. 국내외 경제환경

〈세계경제〉

- 2011년 세계경제는 경기하방 리스크 증가로 상반기에 성장률이 둔화되다가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는 2011년 상반기에 자연재해 충격, 중동·북아프리카 사태 등 경기하방 리스크 증가로 성장률이 2010년에 비해 둔화됨.
- IMF는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반기 4.1%, 하반기 4.5%) 연간 4.3%를 기록하고 2012년에는 4.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 선진국 경제는 2011년 하반기부터 미국과 유로지역이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됨에 따라 2.1~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신흥국 경제는 긴축기조 강화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어 2010년보다 낮은 6.2~6.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돌발 악재 발생 시 금융 불안이 재현되고 실물경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상존함.
- 일부 선진국의 경우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신흥국은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급격한 유출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태는 국제유가 상승, 소비 및 투자 위축 등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두되었으며,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는 글로벌 생산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국내 실물경제〉

- 2011년 국내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소비와 투자가 둔화되고 있어 2010년 보다 낮은 4.2%의 성장률이 전망됨.
 -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둔화되면서 실질 GDP 성장률이 2010년 4/4분기 4.7%에서 2011년 1/4분기 4.2%로 하락함.
 - 향후에도 가계실질구매력 저하, 가계채무상환 부담 증대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한편, 설비투자도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다.
 - 수출은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12.8% 증가하며, 수입은 수출 증가와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12.9% 증가하여 수출 증가율을 상회할 전망이다.
- 하반기에는 경기 상승세의 영향으로 고용 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물가는 비용인상 요인이 작용하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고용사정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에 따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59.1%, 3.6%로 개선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비용상승 요인이 작용하면서 4.2% 상승할 전망이다.

■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 2011년 상품수출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신흥국의 성장세 지속 등으로 1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품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18.7% 증가하여 수출 증가를 상회할 전망이다.

○ 이에 상품수지 2010년보다 다소 낮은 398.7억달러 흑자,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의 영향으로 2010년 보다 크게 낮은 125.8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요약 표-1〉 국내 실물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F)
실질GDP 성장률 (명목GDP)	5.1 (7.3)	2.3 (5.3)	0.3 (3.8)	6.2 (10.1)	4.2 (8.0)
민간소비	5.1	2.0	1.2	3.9	3.3
건설투자	1.4	-2.8	3.4	-1.4	1.2
설비투자	9.3	-1.0	-9.8	25.0	6.8
재화수출	11.9	4.6	-0.2	15.8	12.7
재화수입	10.9	4.5	-7.8	18.2	12.8
실업률 (고용률)	3.2 (59.8)	3.2 (59.5)	3.6 (58.6)	3.7 (58.7)	3.6 (59.1)
소비자물가 상승률	2.5	4.6	2.8	2.9	4.2
경상수지(억달러)	217.7	31.9	327.9	282.1	125.8
상품수지(억달러)	371.3	51.7	378.6	419.0	398.7
상품수출(억달러)	3,895.7	4,346.5	3,581.9	4,642.9	5,415.5
(증가율)	(14.2)	(13.6)	(-13.9)	(28.3)	(16.6)
상품수입(억달러)	3,524.4	4,294.8	3,203.2	4,223.8	5,016.8
(증가율)	(15.4)	(22.0)	(-25.8)	(31.6)	(18.7)

주: 2011(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국내금융시장〉

- 기준금리는 물가상승 압력 지속으로 인해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금리도 이에 따라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상승 억제와 금리 정상화 차원에서 향후 2~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됨.
 - 2011년 시장금리(3년 만기 AA- 회사채수익률 기준)는 기준금리 인상과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2010년보다 높은 5.0% (연평균)로 예상됨.
- 원/달러 환율은 해외자금 유입 증가, 선진국 대비 높은 금리 수준, 경상수지 흑자 기조 등으로 강세를 보여 2011년 연평균 1,071원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 대외적으로는 엔캐리 트레이드 재개,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 등으로 달러화 약세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 기준금리 인상 등 원화강세 요인이 우세함.
 -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금리인상 기대감이 고조됨에 따라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으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2. 보험산업 동향과 전망

〈주요지표〉

■ FY2010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의 저축성보험과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FY2011에도 유사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10.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FY2011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경상GDP)는 FY2010 11.4%에 비해 소폭 상승한 11.5%를 기록하겠으며, 총자산은 13.8% 증가한 59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생명보험〉

■ FY201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퇴직연금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FY2011 사망보험은 종신보험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계속보험료의 안정적 유입으로 1.8% 성장할 것으로 보임.

○ FY2011 저축성보험은 보험상품의 상대적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대내외 금융환경이 안정됨에 따라 10.9%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됨.

－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시중금리 상승이 예상되나 보험상품의 금리 경쟁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변액보험은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장기투자에 적합한 변액연금을 중심으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FY2011에도 퇴직연금시장은 정책적 지원과 함께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퇴직연금은 58.4%, 단체보험 전체로는 10.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손해보험〉

■ FY20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이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도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기저효과로 성장세는 소폭 둔화되면서 15.6% 증가할 전망이다.

- 장기손해보험은 상해·질병보험이 1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저축성보험도 금리 경쟁력을 기반으로 17.6%의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단, FY2011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세는 FY2010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개인연금은 인구고령화에 대한 인식 확산과 연금 관련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45.4% 고성장할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은 퇴직보험제도 종료, 2010년 말 시행된 4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설정 의무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59.7% 성장이 전망됨.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신차 및 고가차량 증가로 성장세가 예상되나, FY2010 고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성장률은 FY2010 10.6% 보다 둔화된 6.5%가 될 전망이다.

- 일반손해보험은 비중이 큰 특종 및 보증보험이 경기회복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어 5.8% 성장이 전망됨.

〈요약 표-2〉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억원, %)

보험종목		FY2008		FY2009		FY2010		FY2011(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생명 보험	개인보험	677,526	-0.2	696,551	2.8	757,403	8.7	813,079	7.4	
	• 보장성	304,888	-0.6	299,386	-1.8	297,126	-0.8	302,474	1.8	
	• 저축성	372,638	0.1	397,165	6.6	460,277	15.9	510,605	10.9	
	단체보험	58,087	-19.2	73,017	25.7	72,672	-0.5	80,333	10.5	
	• 일반단체	10,713	-8.5	8,921	-16.7	8,205	-8.0	7,812	-4.8	
	• 퇴직보험	36,160	-27.1	31,654	-12.5	18,678	-41.0	0	-100.0	
	• 퇴직연금	11,214	6.0	32,441	189.3	45,789	41.1	72,521	58.4	
	합계	735,614	-2.0	769,568	4.6	830,074	7.9	893,412	7.6	
손해 보험	화재	2,835	-7.8	2,763	-2.5	2,660	-3.7	2,611	-1.9	
	해상	8,507	30.5	8,049	-5.4	7,721	-4.1	7,744	0.3	
	자동차	109,371	1.2	112,224	2.6	124,133	10.6	132,168	6.5	
	보증	11,529	16.0	12,287	6.6	13,074	6.4	13,782	5.4	
	특종	30,901	8.9	35,371	14.5	39,446	11.5	42,385	7.5	
	장기	188,829	15.5	232,988	23.4	281,813	21.0	331,428	17.6	
	개인	12,853	28.6	17,841	38.8	24,697	38.4	35,921	45.4	
	퇴직	보험	6,807	-17.6	8,680	27.5	5,284	-39.1	0	-100.0
		연금	3,322	55.7	8,119	144.4	23,616	190.9	37,722	59.7
	합계		374,954	10.3	438,323	16.9	522,445	19.2	603,761	15.6

주: 1) 생명보험의 개인보험 각 종목은 변액보험을 포함함.

2)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 부수사업이 포함됨.

3. 보험회사 경영과제

〈물가상승과 실손보험의 손해율 관리〉

■ 최근 물가상승 우려가 큰 가운데, 물가상승 지속 시 실제사업비 증가로 실손보험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임.

○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를 초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승률이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함.

- 갱신형인 실손보험은 갱신 시 물가상승에 대한 보험료 조정이 일부 가능하겠으나, 그 조정 수준은 여전히 제한적임.
- 자동차보험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작겠으나, 상해, 질병 등 건강보험은 상당한 손해율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임.

■ 따라서 보험회사는 비용 관리, 상품구성 개선 등을 통해 물가상승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신속한 보상, 사업비 개선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자체에서 흡수할 수 있는 버퍼를 조성함.

○ 보험금 지급 패턴이 상대적으로 짧은 보험종목의 구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상품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새 회계기준(IFRS) 적용에 따른 자본변동성 관리〉

■ 2011년 4월 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이 의무·적용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본변동성 관리가 중요해짐.

○ 대다수 보험회사는 FY2011 첫 분기부터 연결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보험회사의 금융자산보다 준비금 등 보험부채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본변동성이 확대될 것임.
 - 손해보험의 경우 지급준비금의 측정 대상과 항목이 늘어나면서 준비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장기보험(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부채적정성 평가의 할인율 변동과 보증/옵션 부문에 대한 평가가 자본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안정적 성과를 유지하면서 자본변동성을 줄이는 것은 기업 가치와 직결되므로 자본규제나 회계변경 등 규제 변화로 인한 영향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할 것임.

〈시스템차원의 거시건전성 금융감독체계〉

-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러한 감독체계 변화에 보험 회사들이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감독자협의회(IAIS)는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도입에 대해 논의 중임.
- 그동안 감독체계가 미시건전성 감독에만 치중했으나,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스템차원에서의 금융안정도 중시하는 거시건전성 감독체계가 보완적 역할로서 중요해짐.
-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주요 위험관리수단으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 활용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I | 전망 배경

■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불안도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신흥국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2010년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고, 선진국은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미해결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함.

○ 또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정정불안에 따라 원유 공급 차질 및 유가 불안 가능성도 상존함.

■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2010년에 비해 둔화됨에 따라 국내경제도 잠재성장률 수준(4%)으로 성장률이 회귀하고 있으며, 고유가 등으로 인해 물가불안이 확대되고 있음.

○ 2010년 상반기 국내경제는 빠른 성장세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점차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함.

○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상회함.

- MENA 지역의 정치적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2011년에도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인상도 예견되고 있음.

■ 2011년 하반기 국내 금융시장은 이러한 실물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원화 강세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들어 물가상승 압력에 따라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측되고 있음.

○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 등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 압력이 높으며, 정부도 물가에 대한 환율의 영향을 감안하여 원/달러 환율 하락을 어느 정도 용인할 것으로 보임.

■ 2010년 국내경제의 빠른 회복세로 FY2010 보험산업이 고성장 하였으며, FY2011 수입보험료의 경우 저축성보험과 퇴직 연금을 중심으로 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FY2010 보험산업은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의 견인 속에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

○ FY2011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의 금리 경쟁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2010년 말 기준으로 퇴직보험이 폐지된 가운데, FY2011 하반기 (세제적격)무배당연금상품 출시 가능성으로 퇴직연금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다만, FY2011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손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손해율이 높아질 우려가 존재함.

■ 본고는 이러한 국내외 경제 변화를 바탕으로 보험산업 관련 주요 지표를 전망하고, 보험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국내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변화를 검토한 후 국내경제 주요 지표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하고자 함.

○ 제시된 주요 국내경제 전망치를 근거로 보험시장에 대한 전망과 보험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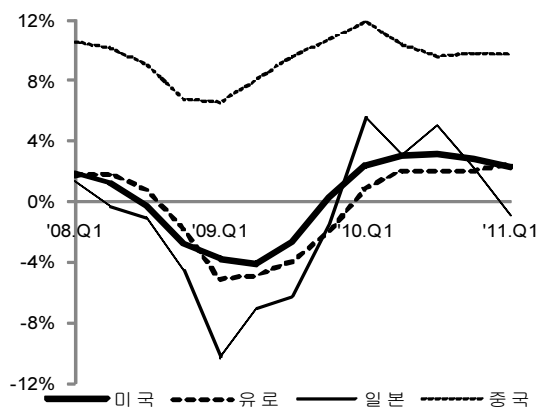
Ⅱ 실물경제 · 금융 환경

1. 세계경제

■ 세계경제는 자연재해 충격, 물가 상승세 확대, 유럽 재정위기 진정 지연 등 경기하방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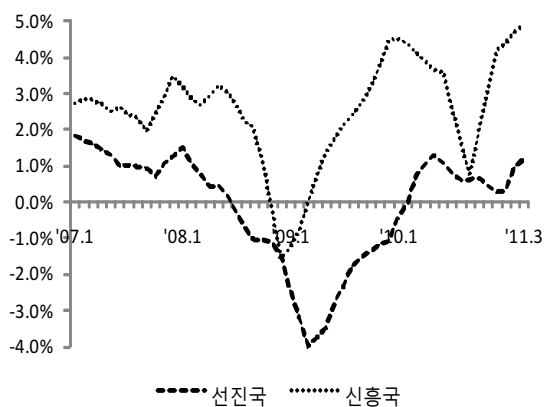
- 선진국은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시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실물경제 지표들이 국가 간 혼조세를 보임.
 - 미국과 일본은 고용여건 호전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 침체, 자연재해 충격 등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부문의 부진이 지속됨.
 - 유로지역은 독일, 프랑스 등의 내수와 수출 부문 호조가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둔화 요인을 상쇄하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시현함.
- 신흥국은 민간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세계경제를 견인함.

〈그림 II-1〉 주요국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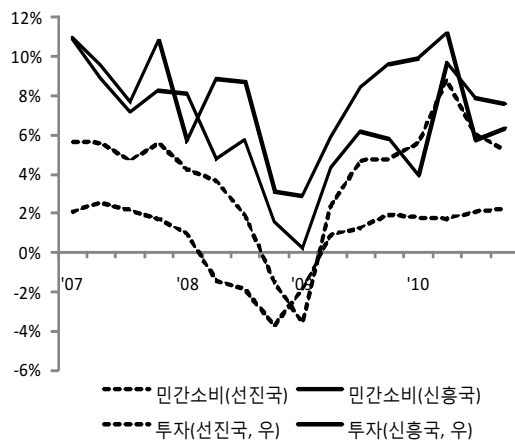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미국상무성, 유로통계청, 일본내각부, 중국국가통계국.

〈그림 II-2〉 고용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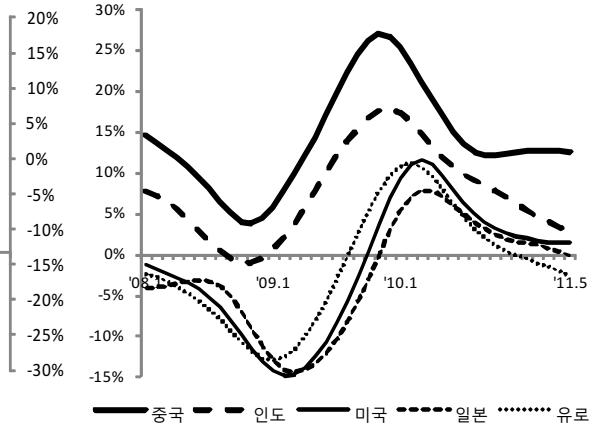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IMF(2011. 6),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그림 II-3〉 실질 민간소비, 투자



주: 전분기대비(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연율.
 자료: IMF(2011. 4), World Economic Outlook.

〈그림 II-4〉 경기선행지수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OECD.

○ 그러나 중국의 경기선행지수가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선진국의 경우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함으로써 경기 불확실성이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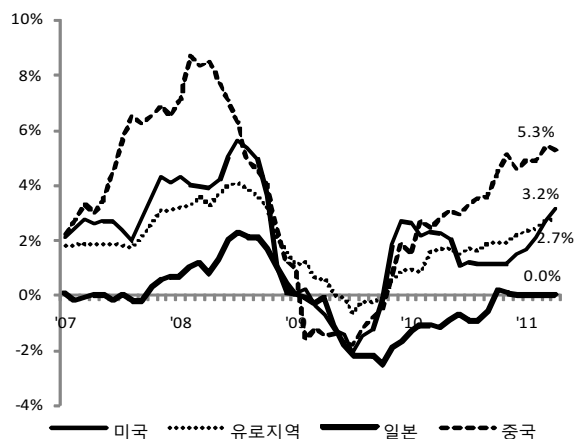
○ 한편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주요 신흥국과 일부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빠르게 확대됨.

〈그림 II-5〉 유가 및 원자재가격 추이



주: 2005=100
 자료: World Bank(2011. 6).

〈그림 II-6〉 소비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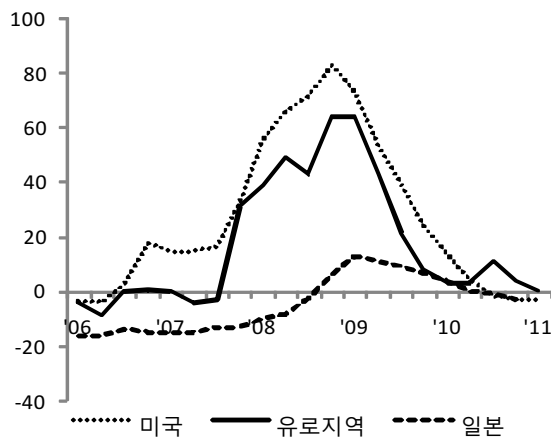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각국 통계청.

■ 글로벌 금융시장은 2010년 실물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함.

○ 선진국의 경기확장적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의 대출조건 완화, 민간신용 확대, 기업의 회사채 발행여건 개선 및 주가 상승 등으로 금융환경이 개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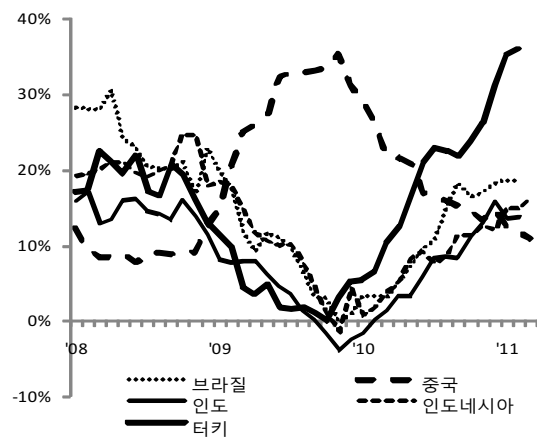
〈그림 II-7〉 선진국 대출 조건



주: 대출조건에 대한 서베이 자료로서
대출조건 강화는 +로 응답하고
대출조건 완화는 -로 응답함.

자료: IMF(2011. 4), World Economic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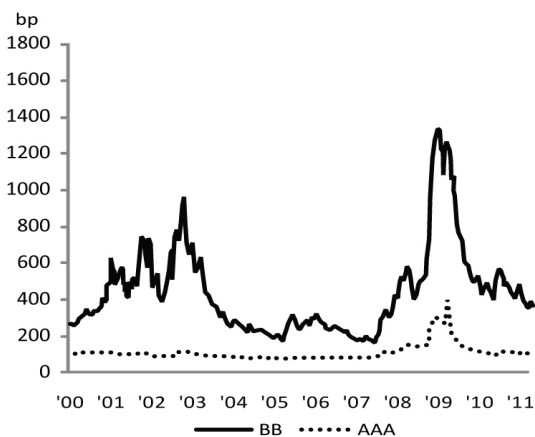
〈그림 II-8〉 실질 신용 증가율



주: M2 기준(broad money),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IMF(2011.6),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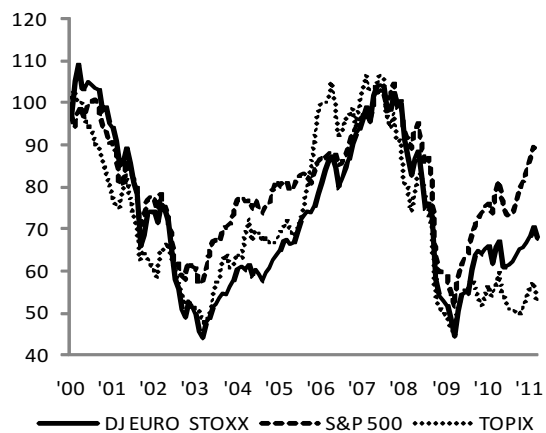
〈그림 II-9〉 회사채 스프레드



주: 10년 만기 미국, 유럽 국채 수익률 평균에
대한 미국, 유럽 회사채 평균(bp)

자료: IMF(2011. 4).

〈그림 II-10〉 주식시장 추이



주: 2007=100

자료: IMF(2011. 4).

■ 2011년 세계경제는 경기회복세가 2010년에 비해 다소 둔화되겠으나 일부 선진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선진국경제는 일본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지만 미국 경제와 유로지역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2.1~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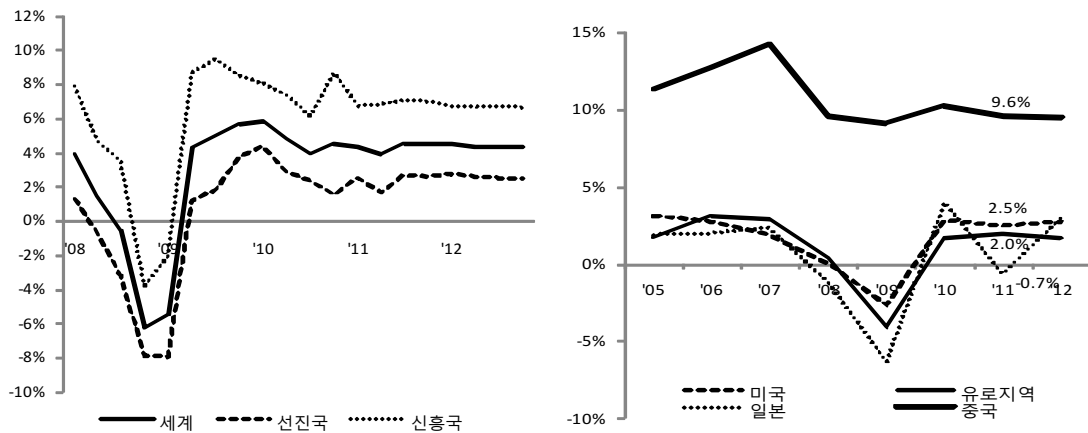
- 미국경제는 재정적자 부담과 주택경기 위축이 실물경기 개선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소비가 확대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유로지역경제는 재정위기에 따른 긴축정책과 금융시장 불안, 높은 실업률이 예상되나 독일 등 주요국의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됨.
- 일본경제는 지진의 여파로 단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이 위축되겠으나 하반기부터는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표 II-1〉 전망기관별 2011년 세계경제 전망

전망기관 (전망시점)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지역	독일	일본	중국
IMF (2011. 6. 17)	4.3%	2.2%	6.6%	2.5%	2.0%	3.2%	-0.7%	9.6%
World Bank (2011. 6. 9)	4.3%	2.2%	6.3%	2.6%	1.7%	—	0.1%	9.3%
EU (2011. 5. 16)	4.0%	2.1%	6.2%	2.6%	1.8%	2.6%	0.5%	9.3%
IMF (2011. 4. 27)	4.4%	2.4%	6.5%	2.8%	1.6%	2.5%	1.4%	9.6%

자료: IMF(2011. 4), World Economic Outlook; EU(2011. 5), European Economic Forecast, World Bank(2011. 6); Global Economic Prospects, IMF(2011. 6);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그림 II-11〉 세계경제 성장 전망 〈그림 II-12〉 주요국 성장 전망



자료: IMF(2011. 6),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 2011년 신흥국경제는 물가불안이 커지면서 긴축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2010년에 비해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 6.2~6.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경제는 물가상승과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고용상황 개선과 가계소득 증가가 전반적인 내수 확대로 연결되면서 9%대 이상의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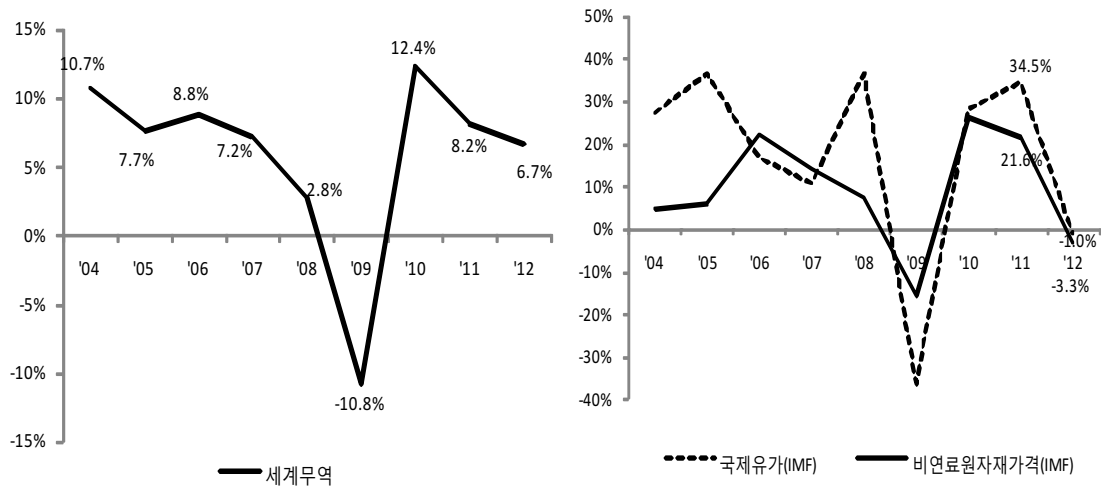
■ 세계무역량은 2011년 들어 예년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유가와 주요 원자재가격은 지정학적 불안요인과 달러 약세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무역량은 기저효과로 2010년 10% 이상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예년 수준인 7~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유가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정불안으로 상승하겠으나, 원유 생산 여력이 비교적 충분하기 때문에 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곡물과 원자재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겠으나, 작황호조와 가격상승에 따른 공급증대로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임.

〈그림 II-13〉 세계무역 및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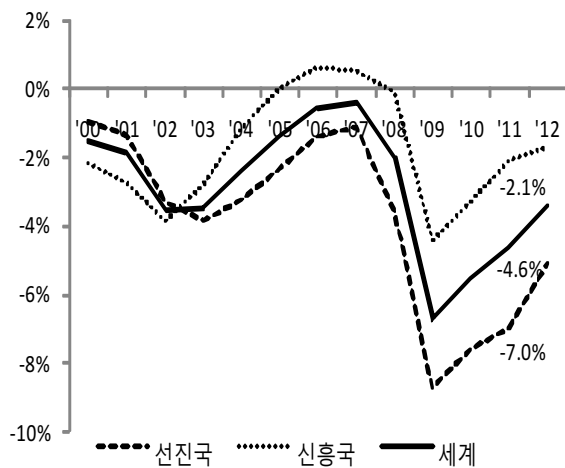


자료: IMF(2011. 6),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 다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돌발 악재 발생 시 금융 불안이 재현되고 실물경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상존함.

○ 일부 선진국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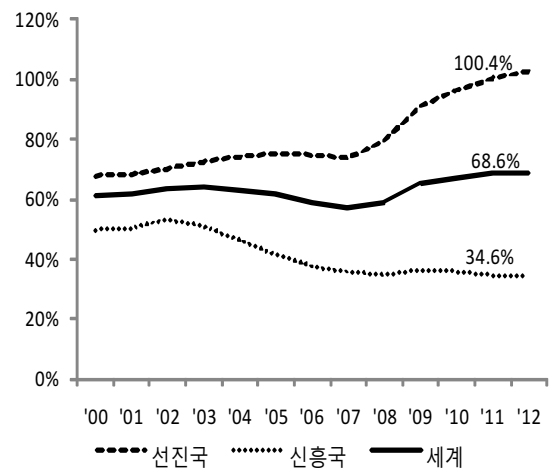
〈그림 II-14〉 재정적자 전망



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자료: IMF(2011. 4), World Economic Outlook.

〈그림 II-15〉 정부부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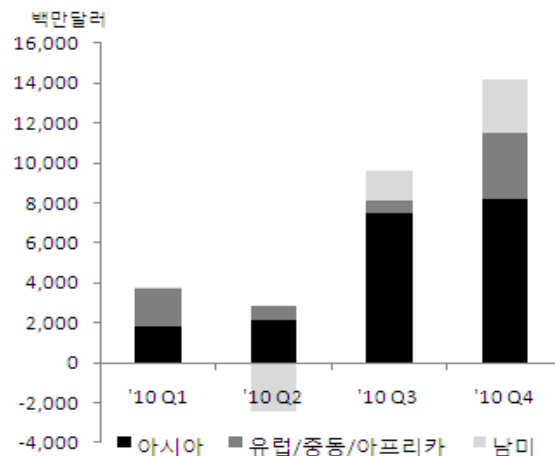


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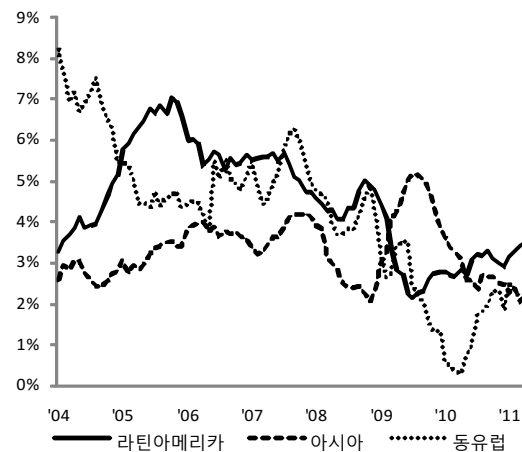
자료: IMF(2011. 4), World Economic Outlook.

- 신흥국은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급격한 유출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으로 인해 금융긴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림 II-16〉 뮤추얼펀드 주식 순매입 〈그림 II-17〉 신흥국 실질 기준금리



자료: IMF(2011. 4), World Economic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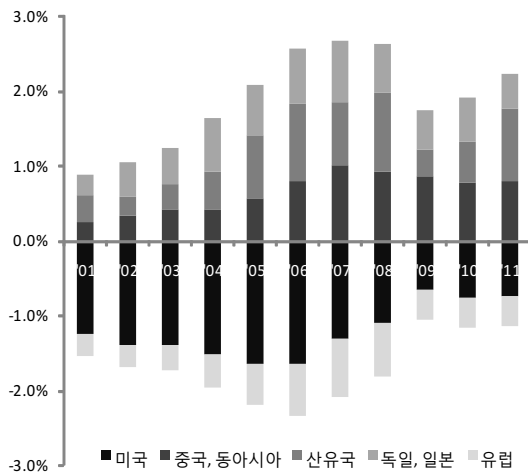


주: 물가상승률로 조정된 실질 기준금리.
자료: IMF(2011. 6), World Economic Outlook.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태는 국제유가 상승, 소비 및 투자 위축 등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두됨¹⁾.
-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로 인해 일본의 중간재 부품²⁾ 수출 및 공급 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 글로벌 생산 수준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함³⁾.
- 지역 간 무역수지 흑자폭은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2000년대 초반보다 불균형이 확대되어 있어 환율정책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 요인이 상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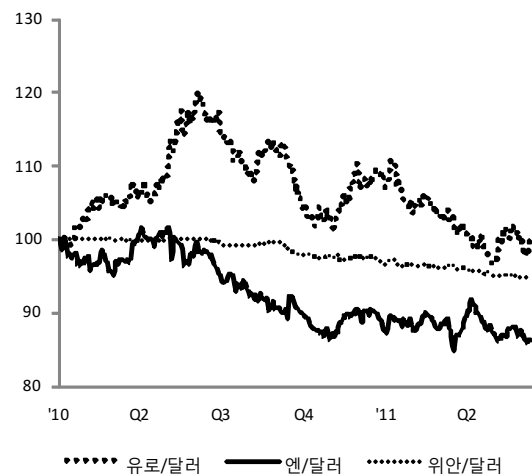
1) 중동 및 북아프리카 정정불안으로 원유공급 생산의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2011년 1/4 분기 현재 원유수요는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함으로써 국제유가는 상승압박을 받음.
2) 반도체, 자동차 부품, 카메라 리코더, 사무자동화 기계 등.
3) World Bank(2011. 6)는 2011년 2월 현재 글로벌 산업생산이 15%(3개월 평균 전기 대비 연율) 성장한 후, 3월 이후 8.5% 성장세로 위축되었는데 이는 대지진으로 일본 산업생산이 15% 하락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그림 II-18〉 무역수지 불균형



주: 무역수지를 세계 GDP의 %로 환산.
자료: IMF(2011. 4), World Economic Outlook.

〈그림 II-19〉 환율 변동 추이



주: 2010. 1. 1=100
자료: IMF(2011. 6).

2. 국내실물경제

〈성장 및 내수〉

■ 국내 경제는 신흥국의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는 둔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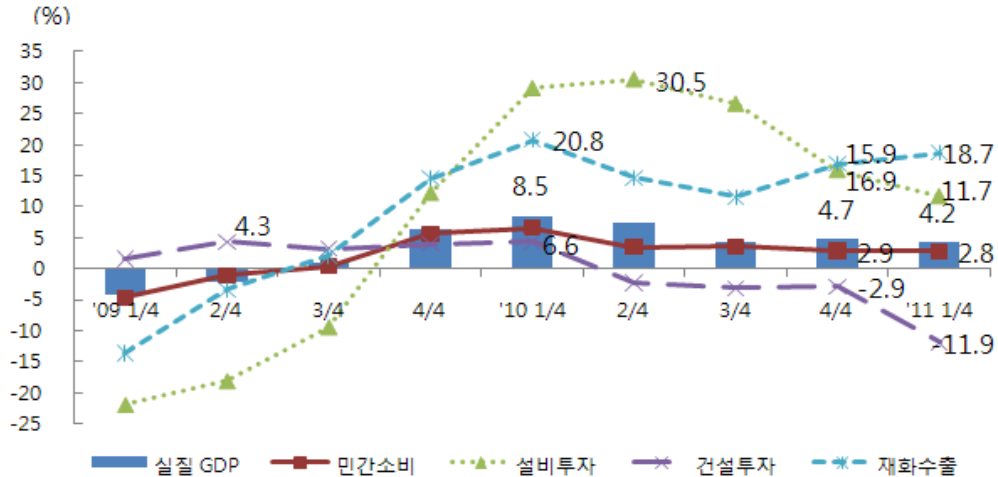
○ 신흥국은 높은 성장을 유지함에 따라 재화수출이 2010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한 것에 이어 2011년 1/4분기에도 18.6% 늘어남.

○ 그러나 국내경제에 대한 대내외 위협요인 상존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는 다소 둔화됨.

－ 대내외 위협요인으로서는 물가상승, 부동산경기 침체, 국제원자재 및 농산물가격 급등 등이 있음.

-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둔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2011년 1/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2010년 4/4분기보다 0.5%p 감소한 4.2%를 기록함.

〈그림 II-20〉 국내 분기별·지출항목별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2011년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 민간소비 및 투자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의 실질구매력 하락,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차입비용 상승 등으로 2010년 3.9% 보다 낮은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는 IT 및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높은 가동률,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재 수입비용 감소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저효과로 인하여 2010년 25.0% 보다 크게 낮은 6.8%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 건설투자는 민간주택 건설이 늘어나면서 2010년 1.4% 감소에서 1.2% 증가로 회복될 전망이다.

- 수출상품의 경쟁력 강화 및 신흥국의 높은 경제성장에 따라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유가상승 및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재화수출 증가율은 2010년 보다 낮은 12.7%가 될 전망이다.

〈고용〉

-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소폭 하락하고, 민간부문에서의 꾸준한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은 상승할 전망이다.
- 2011년 4월 중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7만 9천명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0.1%p 감소, 고용률은 0.2%p 증가함.
- 2010년부터 지속된 경기회복에 따른 제조업 및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에 힘입어 2011년 실업률은 2010년 3.7% 보다 낮은 3.6%일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률은 0.4%p 상승한 59.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물가〉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011년 소비자물가는 4.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개월 연속 4%를 상회함.
- 향후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0년 2.9%보다 1.3%p 높아질 전망이다.

〈대외거래〉

■ 2011년 대외거래는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 및 경상수지 흑자폭이 2010년에 비해 축소될 전망이다.

○ 기저효과와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로 2011년 수출 증가율은 2010년 28.3%에서 11.7%p 감소한 16.6%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내수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 증가율은 2010년 31.6%에서 12.9%p 하락한 18.7%가 될 전망이다.

○ 아울러 경상수지는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해외여행 증가, 해외 법인 수요 증대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0년에 비해 176억달러 축소된 126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표 II-2〉 국내 실물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F)
실질GDP 성장률 (명목GDP)	5.1 (7.3)	2.3 (5.3)	0.3 (3.8)	6.2 (10.1)	4.2 (8.0)
민간소비	5.1	2.0	1.2	3.9	3.3
건설투자	1.4	-2.8	3.4	-1.4	1.2
설비투자	9.3	-1.0	-9.8	25.0	6.8
재화수출	11.9	4.6	-0.2	15.8	12.7
재화수입	10.9	4.5	-7.8	18.2	12.8
실업률 (고용률)	3.2 (59.8)	3.2 (59.5)	3.6 (58.6)	3.7 (58.7)	3.6 (59.1)
소비자물가	2.5	4.6	2.8	2.9	4.2
경상수지(억달러)	217.7	31.9	327.9	282.1	125.8
상품수지(억달러)	371.3	51.7	378.6	419.0	398.7
상품수출(억달러)	3,895.7	4,346.5	3,581.9	4,642.9	5,415.5
(증가율)	(14.2)	(13.6)	(-13.9)	(28.3)	(16.6)
상품수입(억달러)	3,524.4	4,294.8	3,203.2	4,223.8	5,016.8
(증가율)	(15.4)	(22.0)	(-25.8)	(31.6)	(18.7)

주: 2011(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3. 국내금융시장

- 기준금리가 경기 회복세 유지와 물가불안 가시화에 따라 인상되고 있으며, 시장금리도 상승세를 지속함.
- 2011년 1/4분기 중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대비 4.5% 상승하였는데 이는 중기 물가안정 목표치(4.0%)를 상회하는 수준임.
- 물가상승 억제와 금리 정상화 차원에서 향후 2~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됨.
- 2011년 시장금리(3년 만기 AA- 회사채수익률 기준)는 기준금리 인상과 자금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2010년보다 높은 5.0%(연평균)로 예상됨.
-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기업투자 확대, 기업의 자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11년 4/4분기에는 시장금리가 5% 중반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표 II-3〉 국내 금리 및 환율 전망

구분	2009	2010	2011(F)		
			연간	상반기	하반기
회사채(AA-) 수익률	5.8%	4.7%	5.0%	4.6%	5.4%
국고채3년 수익률	4.0%	3.7%	4.3%	3.8%	4.7%
원/달러(평균)	1,276.4	1,156.5	1,071.6	1,103.3	1,040.0

-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해외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 대비 높은 금리 수준, 경상수지 흑자 기조로 강세를 나타냄.

- 대외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재개,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 국제 통화질서 개편 논의 본격화 등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임.
 - 일본의 막대한 엔화 유동성 공급 및 초저금리 유지, 엔화 초강세를 막기 위한 G7의 외환시장 공동개입, ECB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됨.
 - 4월 18일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문제를 들어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함.
 - 위안화의 SDR 편입, 과도한 자본유출입 억제 장치 마련 등으로 달러화의 제1기축통화 위상이 다소 약화될 전망이다.
- 대내적으로도 경상수지 흑자, 기준금리 인상,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약화 등으로 원화강세 요인이 우세함.

■ 원/달러 환율은 2011년 연평균 1,071원으로 예상됨.

-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금리인상 기대감이 고조됨에 따라 달러화의 강세 가능성이 있으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일부 외국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원화 강세가 둔화될 수 있음.
 - 그러나 과거와 달리 미국의 금리인상이 신흥국과 EU보다 늦었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 정도는 과거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정부가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힘에 따라 향후 물가안정을 위해 원화 강세를 어느 정도 용인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 가계부채〉

■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의 금융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10년 말 가계부채의 금융부채는 745.9조원으로 2009년 말에 비하여 (691.9조원) 7.7% 증가함.

－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말 38.1%로 2009년 말에 비해 0.04%p 감소하였으나 2003년 말에 비해서는 2.0%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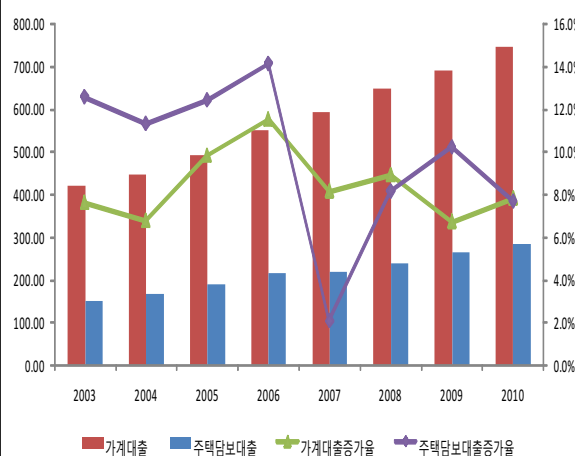
■ 더욱이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개인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상회함.

○ 2003~10년 동안 2007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개인 처분 가능소득 증가율을 상회함.

－ 2003~10년 중 개인처분가능소득이 연평균 6.2% 증가한 것에 반해, 가계 부채는 같은 기간 연평균 9.8%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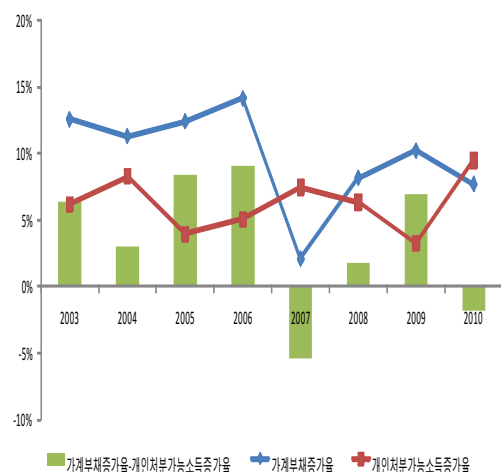
〈그림 II-21〉 가계대출 추이

(단위: 조원)



〈그림 II-22〉 가계부채 증가율과 개인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추이

(단위: %P)



주: 자금순환표상 가계부문 금융부채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Ⅲ 국내보험시장

1. 주요지표

■ FY2010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고, FY2011에도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증가율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FY2010 11.9% → FY2011 10.7%).

○ FY2010 생명보험은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7.9% 성장했으며, FY2011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퇴직연금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7.6% 성장이 전망됨.

○ FY2010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이 고성장을 이어가고 자동차보험도 성장세를 나타냄에 따라 19.2% 성장했으며, FY2011에도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이어져 15.6% 성장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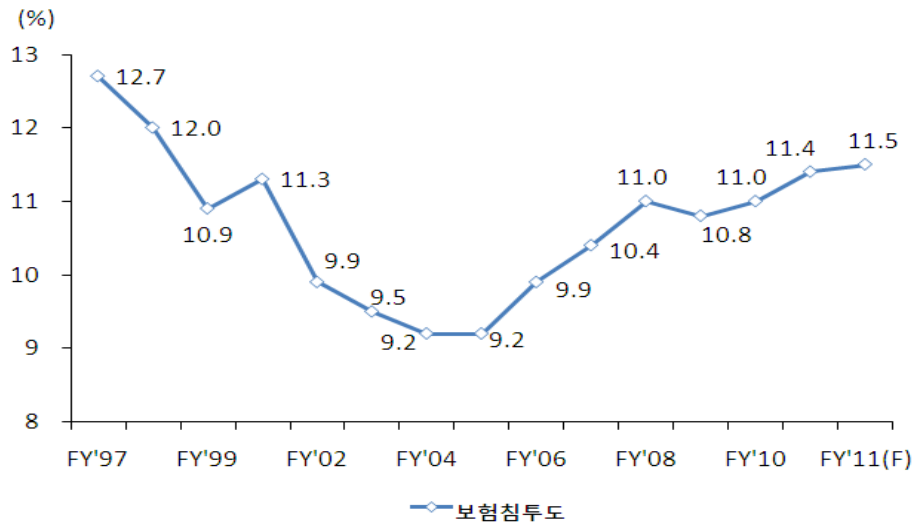
〈표 Ⅲ-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FY2008		FY2009		FY2010		FY2011(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73.6	-2.0	77.0	4.6	83.0	7.9	89.3	7.6
손해보험	37.5	10.3	43.8	16.9	52.2	19.2	60.4	15.6
전체	111.1	1.8	120.8	8.7	135.2	11.9	149.7	10.7

■ FY2011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명목GDP)는 수입보험료가 명목GDP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FY2010 11.4%에 비해 0.1%p 상승한 11.5%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Ⅲ-1〉 보험침투도 추이



■ FY2011 보험산업 총자산은 수입보험료의 꾸준한 증가와 금융 시장 안정에 따른 투자수익 증가로 13.8% 늘어날 전망이다.

〈표 Ⅲ-2〉 보험산업 총자산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FY2008		FY2009		FY2010		FY2011(F)	
	총자산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생명보험	328.3	7.5	372.5	13.5	421.6	13.2	478.2	13.4
손해보험	74.0	12.1	86.1	16.4	100.8	17.1	116.1	15.2
전체	402.3	8.3	458.6	14.0	522.4	13.9	594.3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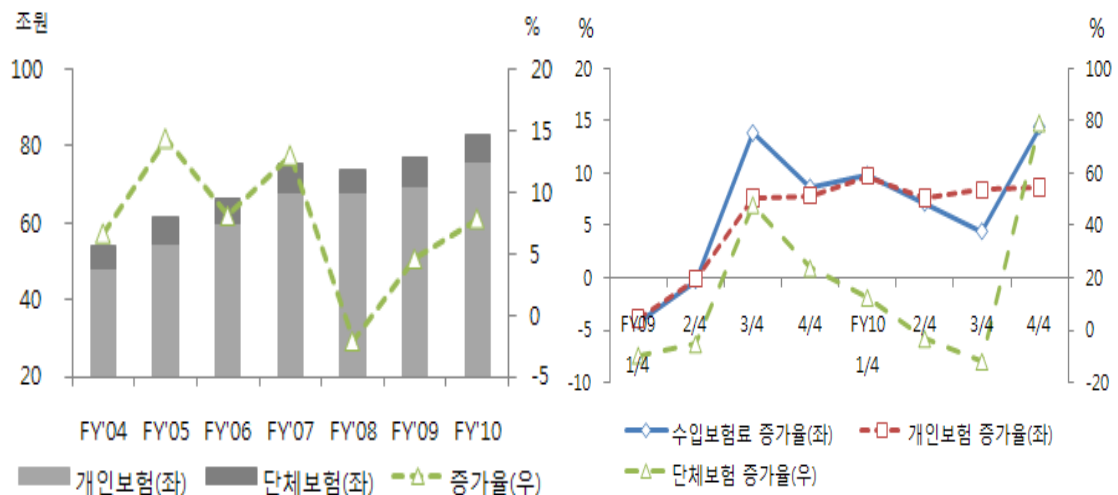
2. 생명보험

1) 수입보험료

■ FY2010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보험 등 개인 저축성보험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7.9%의 증가율을 기록함.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사혼합보험이 30% 내외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생존보험과 변액보험도 10% 내외로 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8.7% 증가함.

〈그림 III-2〉 수입보험료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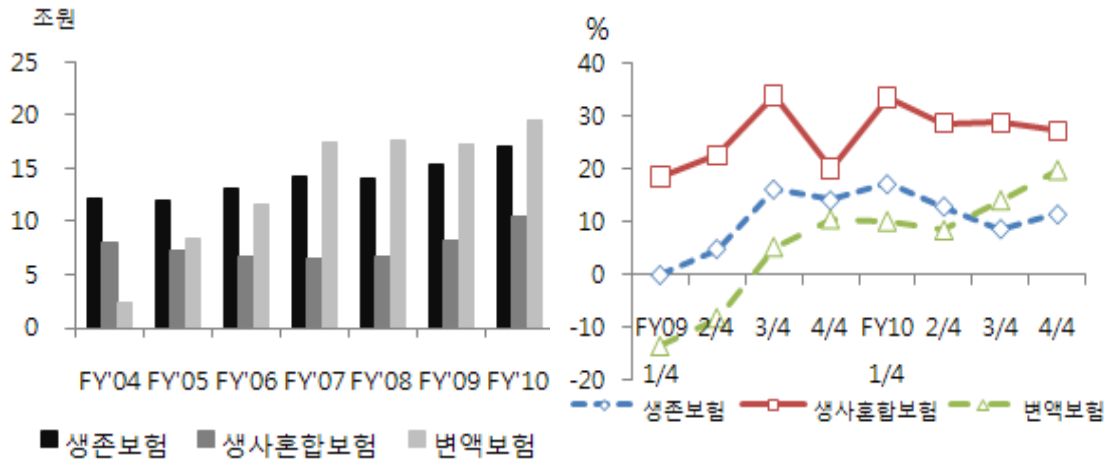
- 단체보험은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퇴직보험 수입보험료 감소분에 미치지 못하면서 0.5% 감소함.

- 한편, 금융위기 당시 4.0%까지 치솟았던 분기 해지율이 2%대로 하락하면서 생명보험 계속보험료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함.

■ FY201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퇴직연금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7.6%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2011년에도 보험상품의 상대적 고금리 현상이 유지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생사혼합보험, 생존보험, 변액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그림 III-3〉 저축성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 퇴직연금시장은 2010년 말 퇴직보험 및 신탁제도 폐지 이후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퇴직연금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생명보험회사의 타업권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감소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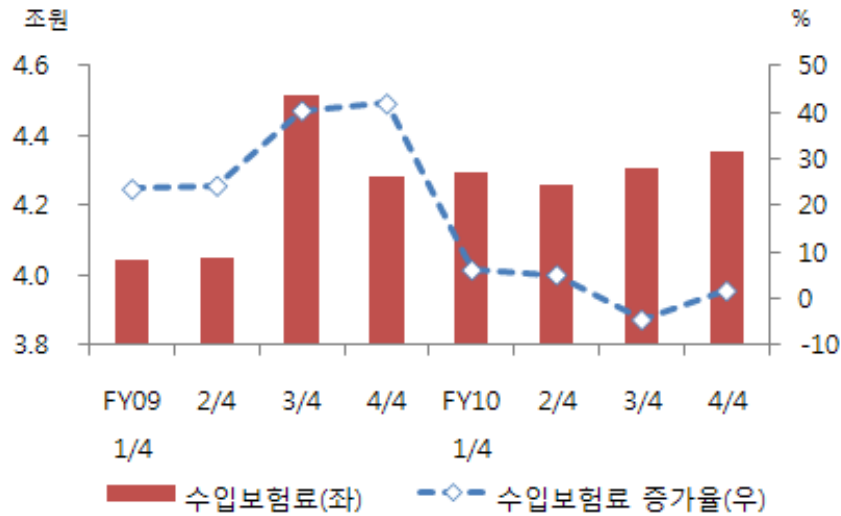
2) 보장성보험 현황과 전망

■ FY2010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상반기 중 통합보험 등 종신보험의 수요 증가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0.8% 감소함.

○ FY2009 하반기 이후 통합보험 등 신상품이 출시되면서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FY2010 하반기에는 기저효과로 인해 감소세로 전환됨.

○ FY2010 하반기 종신보험 수입보험료 감소는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종신보험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4〉 종신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FY2011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 수요 확대와 이에 따른 계속보험료의 안정적인 유입으로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실손의료보험을 부가한 통합형 상품과 새로운 유형의 암보험 등 신상품 출시를 통한 보장성보험 수요 확대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금융위기 이후 저축성보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를 통한 보험상품 간 포트폴리오 조정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보험회사의 수요 확대 전략에도 불구하고 계속보험료 위주의 성장패턴을 보이고 있는 보장성보험의 특성상 성장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3) 저축성보험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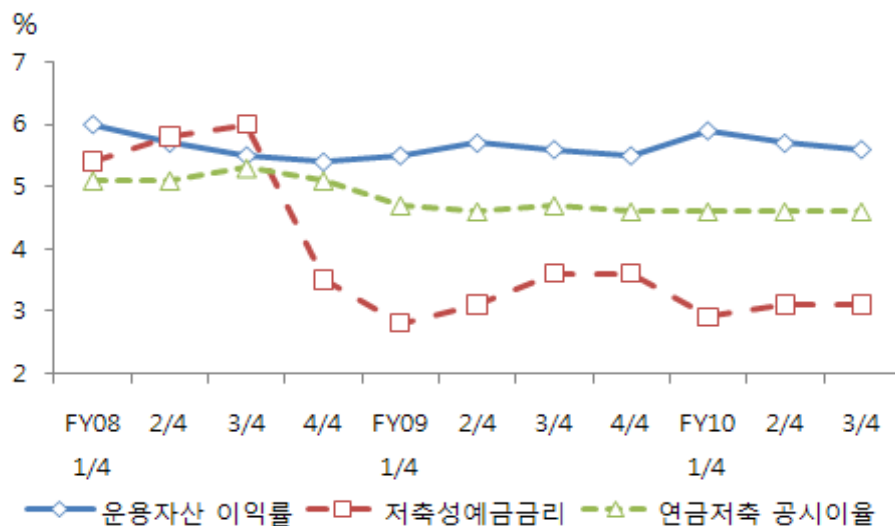
■ FY2010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이 고성장을 기록하고 금융시장 안정으로 변액보험 수요가 회복되면서 15.9% 증가함.

○ FY2010 생존 · 생사혼합 ·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각각 39.7%, 63.5%, 79.7% 증가하였으며, 초회보험료 증가가 계속보험료 증가로 이어지면서 수입보험료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저축성보험의 성장은 주로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저금리 상황에서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은행권의 판매전략에 기인한 바가 큼.

-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저축성 예금금리는 크게 하락한 반면, 생명보험회사 운용자산 이익률은 상대적으로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저축성보험 상품의 금리 경쟁력이 부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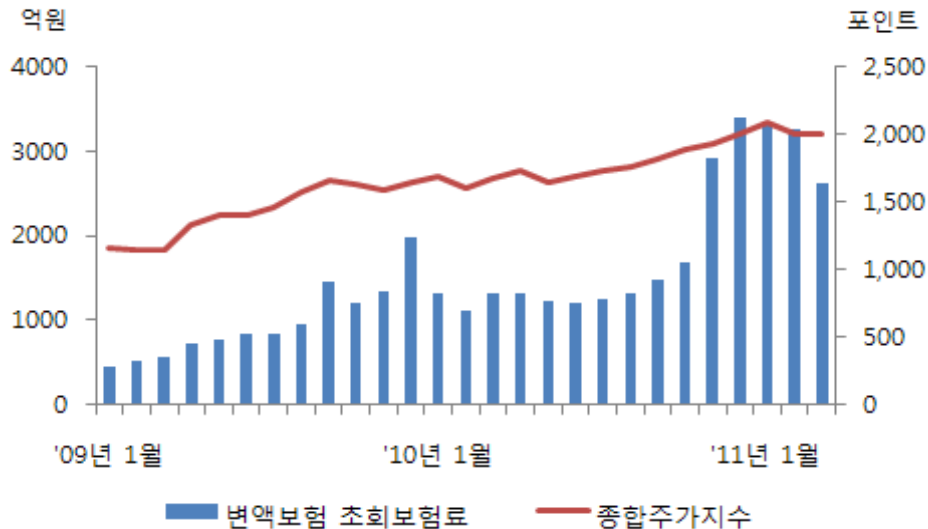
〈그림 III-5〉 운용자산 이익률 및 시중금리 추이



- 10년 이상 장기유지 시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도 저축성 보험 상품이 타 금융상품에 비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10년 4월 1,730이었던 종합주가지수가 2010년 12월 2,000 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변액연금 중심의 변액보험 수요가 크게 확대됨.

〈그림 III-6〉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추이



- FY2011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보험상품의 상대적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1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상승 압력 증가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시중금리 상승이 예상되나 보험상품의 금리 경쟁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 확대를 위해 고금리를 제시하는 등 과열경쟁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음.

- 생존보험의 경우 은퇴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로 인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연금보험 전문 보험회사 신규설립 등으로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변액보험은 금융시장 안정성이 제고되면서 장기투자에 적합한 변액연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표 Ⅲ-3〉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

(단위: 억원, %)

종목	FY2008		FY2009		FY2010		FY2011(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장성보험	304,888	-0.6	299,386	-1.8	297,126	-0.8	302,474	1.8
저축성보험	372,638	0.1	397,165	6.6	460,277	15.9	510,605	10.9
개인보험 계	677,526	-0.2	696,551	2.8	757,403	8.7	813,079	7.4

4) 단체보험 현황과 전망

■ FY2010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퇴직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감소하고, 일반단체보험이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0.5%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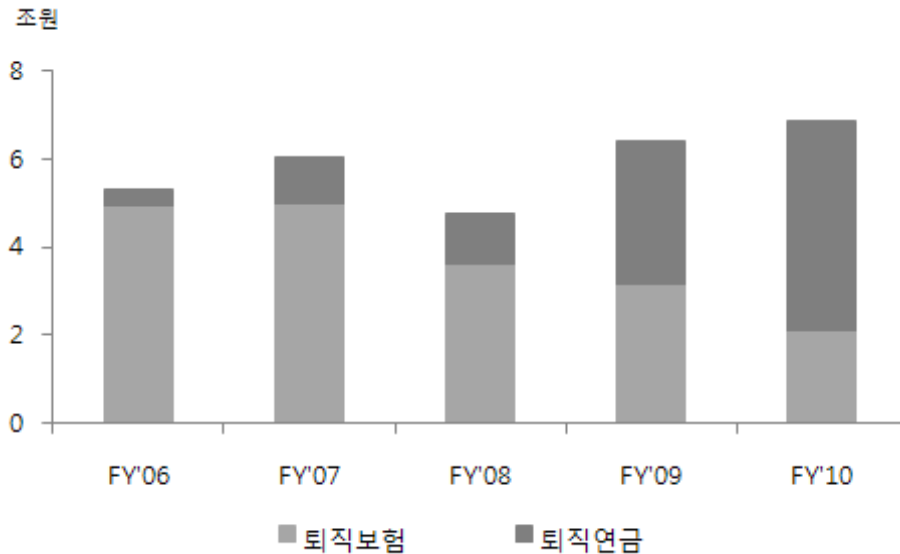
○ FY2010 퇴직연금은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41.1%의 고성장세를 기록한 반면, 퇴직보험과 일반단체보험은 각각 41.0%, 8.0% 감소함.

○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09년 14조원에서 2010년 29조원으로 100% 이상 증가하였으나, 생명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함.

○ 2007년 말 생명보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업권 내에서 가장 높은 42.8%를 차지하였으나, 2009년과 2010년 말 각각 33.4%, 26.1%로 하락하는 등 적립금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업권 간 경쟁심화에 따라 생명보험권에서 이탈된 퇴직보험 적립금이 생명보험 퇴직연금으로 원활하게 재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림 Ⅲ-7〉 퇴직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추이



- FY2011 퇴직연금시장은 정책적 지원과 함께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58.4% 증가하고 단체보험은 전체적으로 1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퇴직보험 및 신탁의 효력기간이 2010년 말 만료됨에 따라 퇴직보험 및 신탁 잔액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전환 목적 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해짐.
-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설정 의무화가 2010년 말 시행되고 퇴직금 손비인정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6월 30일 통과되면서 퇴직연금 전환 절차가 간소화되고 퇴직금의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됨.
- 그러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업권 간 경쟁심화로 인한 생명보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 감소 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Ⅲ-4〉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

(단위: 억원, %)

종목	FY2008		FY2009		FY2010		FY2011(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일반단체보험	10,713	-8.5	8,921	-16.7	8,205	-8.0	7,812	-4.8
퇴직보험	36,160	-27.1	31,654	-12.5	18,678	-41.0	0.0	-100.0
퇴직연금	11,214	6.0	32,441	189.3	45,789	41.1	72,521	58.4
단체보험 계	58,087	-19.2	73,017	25.7	72,672	-0.5	80,333	10.5

〈표 Ⅲ-5〉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

(단위: 억원, %)

종목	FY2008		FY2009		FY2010		FY2011(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개인보험	677,526	-0.2	696,551	2.8	757,403	8.7	813,079	7.4
단체보험	58,087	-19.2	73,017	25.7	72,672	-0.5	80,333	10.5
생명보험 계	735,614	-2.0	769,568	4.6	830,074	7.9	893,412	7.6

3. 손해보험

1) 원수보험료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성 손해보험⁴⁾이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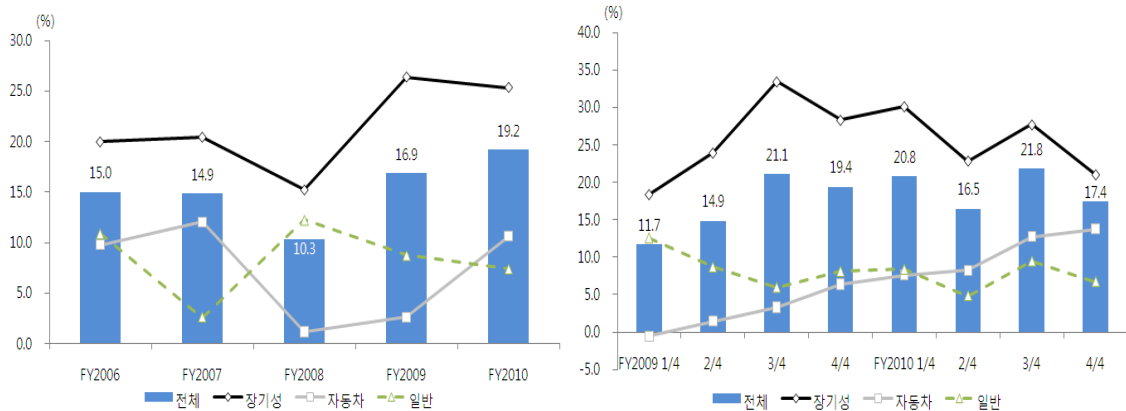
○ 장기성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대적 고금리에 의한 저축성보험 중심의 장기손해보험 고성장세 지속과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급증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실물경기 회복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차량의 고급화 추세도 지속되면서 증가함.

4) 장기성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말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시장침체로 인한 화재보험의 마이너스 성장과 해상보험의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에 의한 특종 및 보증보험의 성장세로 증가세를 나타냄.

〈그림 III-8〉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추이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저축성보험 수요 증가로 인한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FY2010 고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15.6% 성장이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은 지속적인 판매 호조로 인한 계속보험료 유입과 상대적 금리 경쟁력을 가진 저축성보험의 수요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제도 변화⁵⁾ 등으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확대도 예상되어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그러나 FY2010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급증함에 따라 FY2011에는 기저효과로 동 증가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손해보험 성장세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신차 및 고가차량 증가가 계속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FY2010 고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성장률은 둔화될 것임.

5) 퇴직보험 등의 효력기간 만료,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 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 상향조정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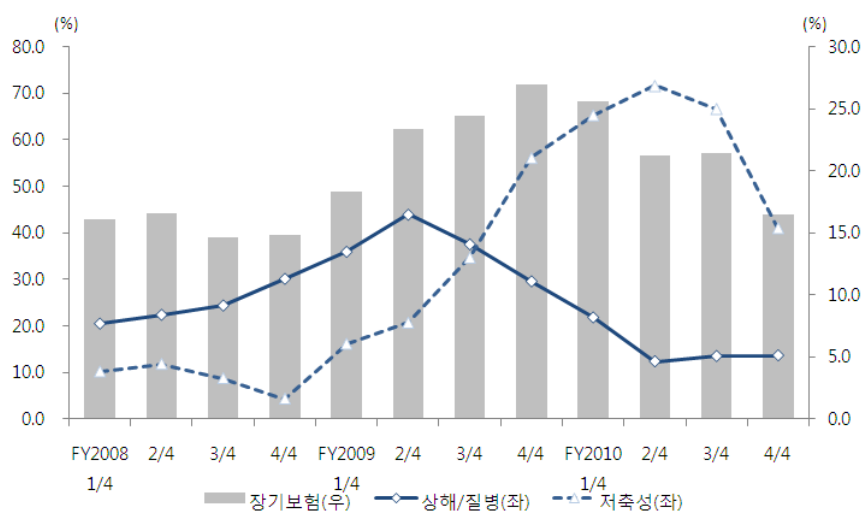
- 일반손해보험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종 및 보증보험이 경기 회복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어 성장세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2) 장기성 손해보험

■ 장기성 손해보험은 저축성보험의 고성장으로 장기보험 성장세가 지속되고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도 제도 효과 등으로 급증함에 따라 두 자릿수 증가세를 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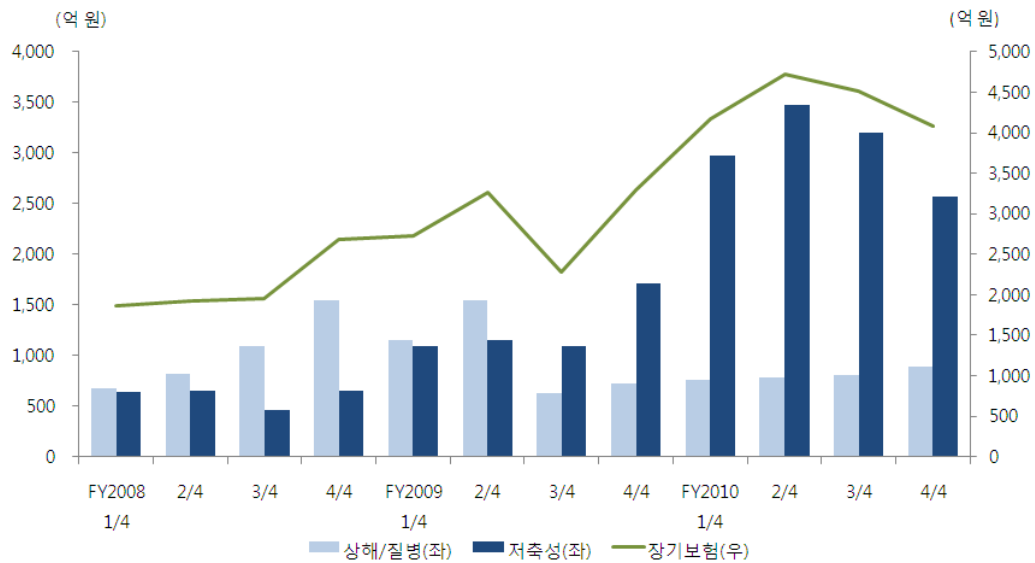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 및 질병보험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여전히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계속보험료 유입도 유지됨에 따라 증가세를 나타냄.
- 상해 및 질병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 상품표준화 이후 크게 감소한 반면, 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증가세를 보이면서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성장세는 계속됨.

〈그림 III-9〉 원수보험료 증가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Ⅲ-10〉 초회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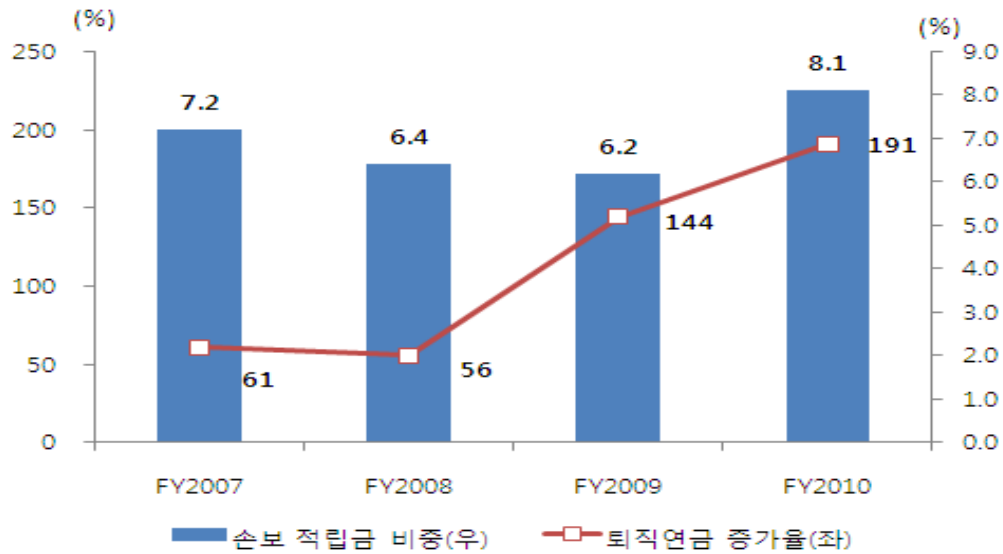


- 개인연금은 경기회복과 고령화에 따른 연금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고성장을 지속함.
- 퇴직보험 원수보험료는 제도 종료⁶⁾의 효과로 크게 감소하였고,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 및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⁷⁾에 따른 수요 증가로 급증함.
 - 퇴직연금은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금융권역별 적립금 비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절대적인 규모면에 있어서 비교열위에 위치함.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서 퇴직보험 등의 효력기간을 2010년 12월 31일로 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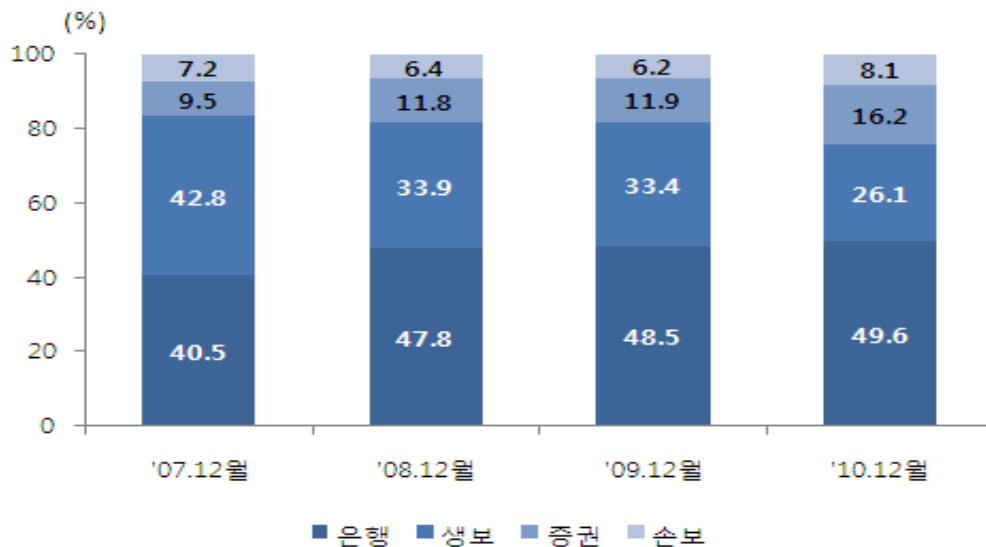
7) 2010년 말 시행된 4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설정 의무화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등이 있음.

〈그림 Ⅲ-11〉 퇴직연금 증가 추이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Ⅲ-12〉 퇴직연금 금융권역별 적립금



자료: 금융감독원.

- FY2011 장기성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제도적 요인 등으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성장이 전망되나 기저효과로 장기손해보험 고성장세 둔화가 예상되어 20.8%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장기손해보험은 FY2010 초회보험료 증가와 해지율 안정화로 계속보험료의 안정적 유입이 전망되나 저축성보험 성장세가 기저효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17.6% 성장이 전망됨.
- 개인연금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꾸준한 수요증가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 상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45.4% 성장이 예상됨.
- 퇴직보험은 기존 퇴직보험 관련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큰 폭의 감소세가 예상되며, 퇴직연금은 퇴직보험 제도 종료 효과 및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조치 등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단, 퇴직연금의 경우 금융권 간의 경쟁 심화가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 III-6〉 장기성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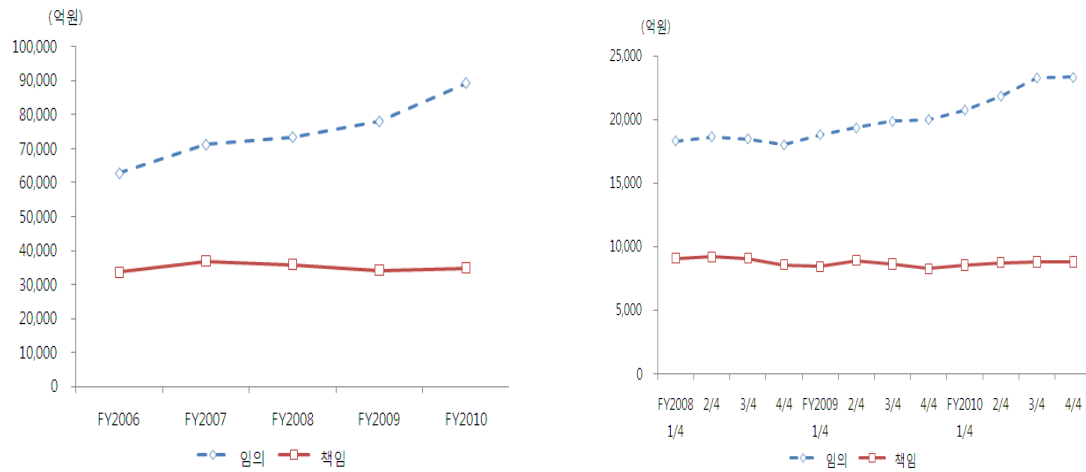
(단위: 억원, %)

종목	FY2008		FY2009		FY2010		FY2011(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보	188,829	15.5	232,988	23.4	281,813	21.0	331,428	17.6
개인연금	12,853	28.6	17,841	38.8	24,697	38.4	35,921	45.4
퇴직보험	6,807	-17.6	8,680	27.5	5,284	-39.1	0	-100.0
퇴직연금	3,322	55.7	8,119	144.4	23,616	190.9	37,722	59.7
합계	211,810	15.2	267,629	26.4	335,411	25.3	405,071	20.8

3) 자동차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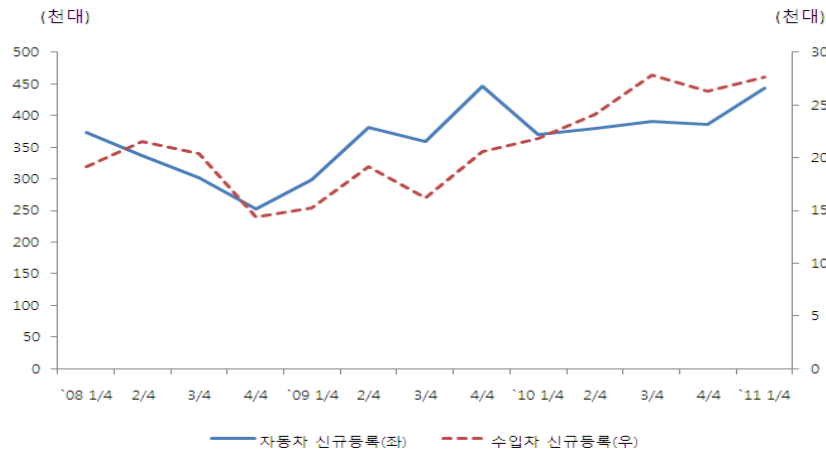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회복 및 담보 확대 강화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회복세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수입차 및 대형차의 증가로 임의담보에 대한 고성장세가 나타남에 따라 증가세를 지속함.

〈그림 Ⅲ-13〉 담보별 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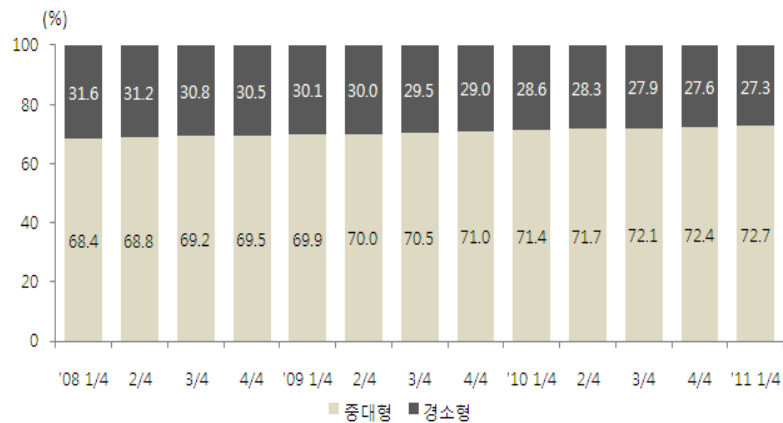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Ⅲ-14〉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



자료: 국토해양부.

〈그림 Ⅲ-15〉 중대형/경소형 비중



자료: 국토해양부.

■ FY2011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회복세 둔화와 더불어 온라인 판매채널 비중 확대에 의한 가격경쟁 심화가 예상되어 6.5%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정비수가 인상과 차량고급화 및 대물·자차담보 강화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 둔화로 차량등록대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한편 FY2010 고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도 존재하여 성장세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최근 온라인 판매채널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동차보험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표 III-7〉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원, %)

종목	FY2008		FY2009		FY2010		FY2011(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자동차	109,371	1.2	112,224	2.6	124,133	10.6	132,168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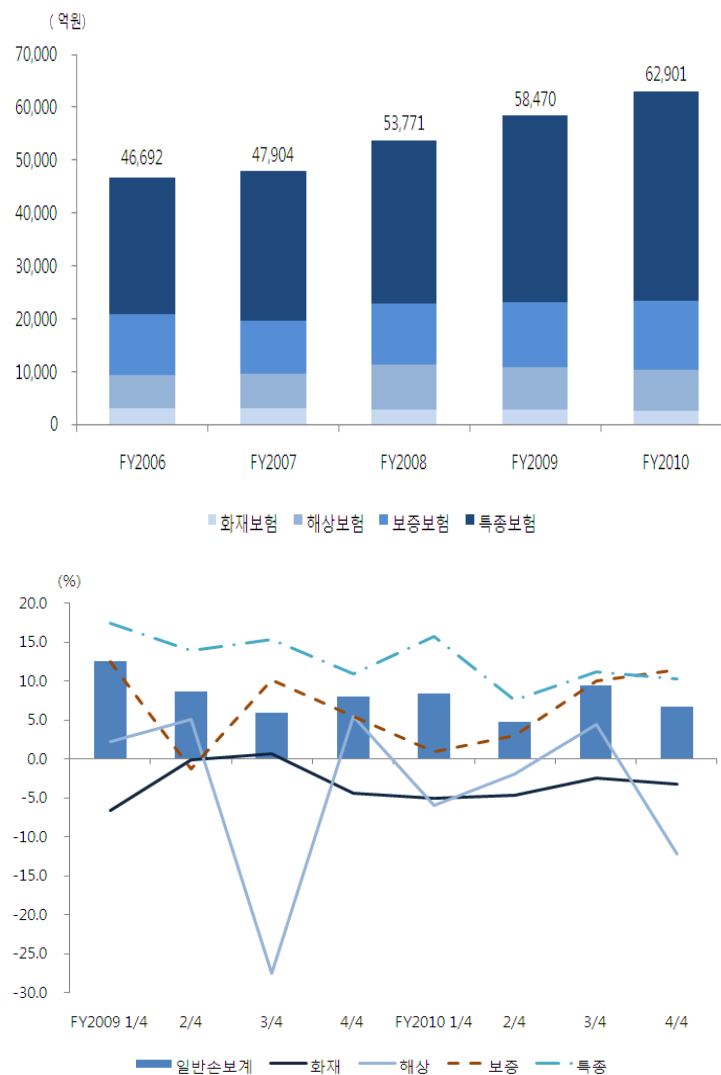
4) 일반손해보험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의 감소세와 해상보험의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특종 및 보증보험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감.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시장침체가 이어지면서 공장물건과 일반 물건 등 전종목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감소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적하보험이 기저효과와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늘어났으나,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선박 및 기타보험이 감소하면서 저조한 실적을 나타냄.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와 민간중심의 건설경기 회복 조짐으로 증가함.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기술보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해보험이 성장세를 나타냄에 따라 증가함.
- 상해보험은 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한 단체상해보험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힘입어 고성장세를 지속한 반면, 기술보험은 공공부문 건설투자세 감소와 기저효과로 감소함.

〈그림 III-16〉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증가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1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수요 증가로 특종 및 보증보험의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나 경기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5.8%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화재보험은 화보법 개정⁸⁾으로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늘어났으나 특종 종합보험 및 장기 재물보험으로의 물건이탈 추세⁹⁾가 계속되고 있어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 해상보험은 FY2010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와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하락 등이 예상되어 저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꾸준한 수요로 증가세 지속이 예상되나, 경기 회복세 둔화로 5.4%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상해보험이 수요 증가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기술보험 등이 경기회복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7.5% 증가가 전망됨.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여행자보험이 성장하고 기업의 복리후생 확대 분위기로 단체상해보험 성장도 예상되어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반면, 기술보험은 건설투자의 뚜렷한 증가가 예상되지 않아 성장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8)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화보법)’이 2010년 3월 개정되어 201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특수건물의 범위에 공유건물,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이 추가됨.

9) 다수 보장을 제공하는 특종 종합보험이 영업에 있어서 화재보험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장기보험 성장세에 편승한 장기 재물보험 확대 추세로 일부 화재보험 물건이 장기 재물보험으로 전환되고 있음.

〈표 III-8〉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원, %)

종목	FY2008		FY2009		FY2010		FY2011(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화재	2,835	-7.8	2,763	-2.5	2,660	-3.7	2,611	-1.9
해상	8,507	30.5	8,049	-5.4	7,721	-4.1	7,744	0.3
보증	11,529	16.0	12,287	6.6	13,074	6.4	13,782	5.4
특종	30,901	8.9	35,371	14.5	39,446	11.5	42,385	7.5
합계	53,771	12.2	58,470	8.7	62,901	7.6	66,522	5.8

주: 특종보험 기타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표 III-9〉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원, %)

종목	FY2008		FY2009		FY2010		FY2011(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화재	2,835	-7.8	2,763	-2.5	2,660	-3.7	2,611	-1.9
해상	8,507	30.5	8,049	-5.4	7,721	-4.1	7,744	0.3
자동차	109,371	1.2	112,224	2.6	124,133	10.6	132,168	6.5
보증	11,529	16.0	12,287	6.6	13,074	6.4	13,782	5.4
특종	30,901	8.9	35,371	14.5	39,446	11.5	42,385	7.5
장기손보	188,829	15.5	232,988	23.4	281,813	21.0	331,428	17.6
개인연금	12,853	28.6	17,841	38.8	24,697	38.4	35,921	45.4
퇴직보험	6,807	-17.6	8,680	27.5	5,284	-39.1	0	-100.0
퇴직연금	3,322	55.7	8,119	144.4	23,616	190.9	37,722	59.7
합계	374,954	10.3	438,323	16.9	522,445	19.2	603,761	15.6

주: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IV 보험회사 경영과제

1. 물가상승과 실손보험의 손해율관리

■ 2011년 들어 물가상승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고 있으나, 이러한 물가상승이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4%대를 기록함.
- 외부충격에 약한 유류 및 농산물을 제외하고 산출한 근원물가도 5월 들어 전월대비 3.5% 상승함.

■ 물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의료비와 공임 등 손해액과 인건비 등 실제사업비의 증가로 실손보험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실손보험은 갱신형으로 판매되고 있어 갱신 시 보험료 조정으로 물가상승에 대응할 수 있으나, 그 대응 수준은 여전히 제한적임.
 -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보험소비자는 가격인상 시 갱신을 포기할 수 있고, 결국 위험도가 높은 보험소비자만 남게 되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어 가격 조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자동차보험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을 것이나, 상해·질병 등 건강보험은 상당한 손해율 상승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보험의 특성상 역선택의 영향이 크지 않고, 2011년 2월부터 시행된 안정화 대책과 같은 제도개선으로 원가상승 부담을 상쇄할 여지가 존재함.

■ 따라서 보험회사는 비용관리, 상품구성 개선 등을 통해 물가상승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신속한 보상과 사업비 개선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자체에서 흡수할 수 있는 버퍼를 조성함.
 - 보험사고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추정손해액의 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시행될 사항임.
- 보험금 지급 패턴이 상대적으로 짧은 보험종목의 구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상품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재물보험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물가상승은 물론 아직 판매가 활발하지 않은 신성장영역의 개척도 겸하는 적절한 대안이 될 것임.

2. 새 회계기준(IFRS) 적용에 따른 자본변동성관리

- 2011년 4월 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이 의무·적용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본변동성 관리가 중요해짐.
 - 대다수 보험회사는 FY2011 첫 분기부터 연결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보험회사는 자산 100억원 미만 회사, 법인격 없는 조합, 파트너십, 특수목적회사(SPC) 등을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함.
 - 또한 모든 보험회사는 연결기준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분·반기보고서를 분·반기 경과 후 60일 이내에¹⁰⁾, 연결감사보고서를 주총 1주 전에 제출하여야 함.
- 국제회계기준 적용은 보험회사의 금융자산보다 준비금 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10) 2년 이후부터는 45일 이내임.

-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퇴직급여 등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나, 자본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1단계 보험회계기준이¹¹⁾ 적용되는 보험부채 (준비금)회계임.
 - 대부분 시가로 평가되는 금융자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감독규정에서 회사의 경험발생률로 변경되는 것이나 자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됨¹²⁾.
 - 반면, 준비금의 경우 부채적정성 평가가 요구되고 있어 회사에 따라 자본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손해보험의 경우 지급준비금의 측정 대상과 항목이 늘어나면서 준비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사업비로 분류되어 온 손해조사비는 지급준비금 항목으로 편입됨에 따라 준비금과 요구자본량을 증가시킬 것임.
 - 장기보험(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부채적정성 평가의 할인율 변동과 보증/옵션 부문에 대한 평가가 자본변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미경과보험료와 보험료적립금에 대해서 장래 추세를 고려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준비금을 추가 적립해야 하므로 그만큼 자본변동이 발생할 것임.
 - 특히, 그동안 할인율로 사용해 온 과거 자산운용수익률과 향후 사용할 미래 자산운용수익률 간의 차이가 클수록 보험회사가 추가로 적립해야 할 준비금 규모가 늘어날 수 있음.
- 안정적 성과를 유지하면서 자본변동성을 줄이는 것은 기업 가치와 직결되므로 자본규제나 회계변경 등 규제변화로 인한 영향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할 것임.

11) IFRS 4 Phase 1.

12) 이에 감독당국은 기존 감독규정보다 낮은 경험률이 적용되어 충당금 감소가 발생할 경우 그 감소분을 자본계정에서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함.

- 자산과 부채의 종합관리라는 측면에서 자산구성과 상품구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3. 시스템차원의 거시건전성 금융감독체계

-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러한 감독체계 변화에 보험회사들이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감독자협의회(IAIS)는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입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임.
- 위기 이전의 감독체계는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만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미시적 건전성 감독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음.
- 그러나 위기 이후 미시적 건전성 감독뿐만이 아니고 시스템차원에서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됨.
- 따라서 향후 미시건전성 감독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감독체계가 상호보완적으로 금융규제의 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주요 위험관리수단으로 위기 상황분석(Stress Testing) 활용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음.
- 첫째, 위기상황분석은 감독자 및 경영자가 가상적 위기상황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처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험 관리수단임.

- 둘째, 위기상황분석은 각 보험회사의 잠재적 취약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경영 또는 영업전략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대응가능하게 함.
- 셋째, 위기상황분석은 보험계리모형과 건전성 자본규제제도에 대해 이해도가 낮을 수 있는 경영진에 보험계리의 실행모형과 자본 규제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총괄

윤성훈(선임연구위원)

경제·금융

경제총괄 윤성훈(선임연구위원)

세계경제 이정환(선임연구위원)

실물경제 오병국(연구위원)

금융시장 이정환(선임연구위원)

보험산업

보험총괄 황진태(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세중(선임연구위원)

손해보험 최원(선임연구위원)

CEO Report 2011-0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발행일	2011년 7월
발행인	김대식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쇄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3775-9016)로 연락하여 주십시오.